

이집트 수에즈운하청과 친환경 물류 협력방안 모색

- 오사마 라비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장과 면담
-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 지원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지원 당부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.25.(목) 9시, 롯데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오사마 라비(Osama Rabie)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장을 면담하고, 양국 간 해상 물류 협력 강화, 수에즈 운하의 친환경 전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 수에즈운하청은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2%를 차지하는 글로벌 해상 물류 요충지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써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.

정인교 본부장은 산업·에너지 공적개발원조(ODA)를 통해 ‘수에즈 운하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(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수행)’을 추진 중이며, 동 사업이 수에즈 운하의 친환경 전환 사업인 「녹색 운하(Green Canal)」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. 이 사업을 통해 운하 관리선박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다. 라비 수에즈운하청장은 그간 수에즈 운하 개발에 있어 그간 기술인력연수 등 한국 측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, 동 사업을 계기로 이집트의 조선, 항만, 해운 등 산업 육성에 있어 한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.

한편, 정 본부장은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「2024 한-아프리카 정상 회의」를 소개하며 「비즈니스 서밋」 등 경제인 행사에 이집트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,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 지원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	책임자	과 장	권현철 (044-203-572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훈 (044-203-5725)